

## 비대칭적 중격비후를 가진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Dipyridamole 부하 TI-201 심근 SPECT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, 서울중앙병원 핵의학과, 내과\*

\*원경숙, 류진숙, 최윤영, 김희중, 양승오, 강덕현\*, 박승정\*, 이희경

연구배경: 관동맥질환 이외에도 증상이 있는 비후성 심근증환자의 약 3/4에서 흉통을 호소하는데, 흔히 이들에서의 TI-201 심근 SPECT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. 이에 저자들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TI-201 심근 SPECT상의 특징적인 소견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대상은 심초음파상 비대칭적 중격비후를 가진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군 20명과 정상 대조군 20명으로, dipyridamole 부하후 삼중헤드 감마카메라에서 TI-201 심근 SPECT를 시행하여, 전체 심근 분절은 5개(심첨부, 전벽, 후벽, 측벽, 중격)로 나누어 관류결손의 심한정도에 따라 4등급(0-3+)으로 평가하고, 부하시와 안정시의 TI-201 심근 SPECT 소견을 비교하였다.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안정시 극성지도를 Emory대학 극성지도 프로그램의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, -2 SD 이상의 증가된 섭취가 있는지 조사하였고, 전체 심근의 부하시와 안정시의 계수치로부터 절대제거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.

결과: 1. 환자군 20명 중 18명에서 부하시 TI-201 심근 SPECT상 1분절 이상의 관류감소가 관찰되었으며, 분석한 전체 100분절 중 35분절에서 +1등급이상의 관류결손이 있었는데, 관류결손 부위는 전벽 13, 중격 11, 후벽 7, 심첨부 3, 측벽 1분절로 주로 전벽(37%), 중격(31%)에서 관찰되었고, 관류결손을 보인 분절의 64%가 +1 등급, 나머지가 +2등급으로 비교적 경미한 관류감소를 보였다.

2. 관류결손을 보였던 분절중 31분절(88.6%)에서는 완전가역, 2분절에서는 부분가역, 2분절에서는 비가역성 병변이었으며 역제분포도 3명에서 후벽과 측벽에 관찰되었다.

3. 부하시와 안정시 심근 SPECT의 횡단면상을 비교하여, 안정시 좌심실 내강이 좁아보이는 경우가 환자군 19명에서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한 예도 없었다.

4. 환자군 중 7개분절(중격5, 전벽2)에서 +2 SD이상의 증가된 섭취를 보였고, 정상대조군은 한 분절도 없었다.

5. 절대제거율은 환자군에서  $31.6 \pm 9.4\%$ , 대조군은  $37.1 \pm 8.4\%$  ( $P=0.0592$ )로 환자군에서 감소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

결론: 비대칭적 중격비후를 가진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dipyridamole 부하 TI-201 심근 SPECT는 주로 전벽과 중격에 경한 가역적 관류결손이 있고, 안정시 SPECT상에서는 정상군보다 TI-201 섭취증가를 보이면서 횡단면상에서는 좌심실 내강이 좁아보이는 특징이 있었다. 이와 같은 소견은 관동맥질환에서 보이는 SPECT 소견과의 감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.